

EU·영국, 탄소규제 동향

- 탄소규제에 대비한 컴플라이언스 필요 -

2021. 7. 14. EU집행위원회가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제안한 이후, 2023. 5. 16. EU 관보에 게재되고 5. 17.부로 최종발효 되었습니다. 탄소배출에 대한 관세부과로 촉촉한 탄소규제를 도입한 EU는 추가적인 탄소규제를 시작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EU를 탈퇴하였지만 EU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국 또한 EU의 움직임에 맞추어 탄소규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EU와 영국의 탄소규제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경

기후변화가 매년 심화되고, 그 위기감이 증가하면서 EU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EU 집행위원회가 2021. 7. 14.에 발표하였던 EU의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입니다. Fit for 55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의미하는데, 배출권거래제 신설·강화, 탄소흡수원 확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 등의 정책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EU에서는 CBAM 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수입산 화석 연료 메탄 배출 규제안과 탄소제거인증제도 도입안까지 선보이는 등 새로운 규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EU를 탈퇴하긴 했지만 유럽의 일부인 영국 또한 이에 영향을 받아 영국판 CBAM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EU의 탄소감축 규제

1) CBAM

Fit for 55의 일환인 CBAM은 상기하였듯 2021. 7. 14. 발표되었고, 이후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2023. 5. 17.에 최종발효 되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EU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모든 역외국들이 적용대상입니다. CBAM에 근거하여 EU는 대상 수입품목에 대해 탄소배출량 1톤당 CBAM 인증서 1개를 구매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3. 10월부터 2025. 12월까지의 전환기인데 이 때는 분기별 보고서 제출 의무만 부과되나, 2026. 1월 시행되면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이 요구됩니다.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6종이었으나 최근 2023. 11. 15. 산업통상자원부와 EU집행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인포세션'에서 EU집행위원회 측에서 품목 확장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석유화학](#)과 [정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 수입산 화석 연료 메탄 배출 규제안

EU집행위원회는 2023. 11. 15. 성명을 내며 2030년부터 수입하는 원유와 가스의 메탄배출량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에너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법안에 따르면 EU에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를 수출할 때 EU의 메탄 배출량 제한을 충족하는지 보고해야합니다. 아직 EU의회와 이사회 두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메탄 배출한도는 법안 시행 1년 전 EU집행위원회가 정할 예정입니다.

3) 탄소제거인증

EU집행위원회는 2022. 12월 주요 생산 분야의 탄소제거 규모를 수치로 파악하고 인증서를 발급하여 이를 거래하도록 하는 탄소제거인증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여러 논의를 거쳐 2023. 11. 21. EU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탄소제거, 제품 내 탄소 저장, 농업에서의 탄소 격리, 농업에서의 탄소 감축 등 4가지 인증 분야를 갖추고 있습니다. 탄소제거 인증을 위해서는 수백 년 이상 탄소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탄소농업의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며 식량 안보에도 악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제품 내 탄소 저장 부문은 제도 시행 후 첫 5년 동안은 최소 50년간 탄소 저장 가능한 목재나 건축용 자재로 인증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나. 영국의 CBAM

[영국은 탈탄소화 추진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새로운 CBAM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U의 CBAM으로 인하여 과세 부담을 마주하고 있는 탄소집약적 상품들이 영국에 덤핑을 할 우려가 있어 영국도 자체적으로 CBAM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영국은 CBAM 도입과 관계없이 탄소 가격을 EU수준으로 맞추지 않는 한 영국의 수출이 더 높은 부담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CBAM의 설계와 시행은 2024년에 정확한 적용 대상 제품 목록을 포함하여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영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 영향을 받는 기업 및 단체와 협력하여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규정 준수 단계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2023년 3월 발표된 '탈탄소화를 위한 탄소누출 위험의 해결'에서 영국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뿐 아니라 필수제품표준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필수제품표준 (Mandatory Product Standards, MPS)은 제품별 배출량 상한을 설정하여 한도초과 제품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생산되거나 영국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적용되므로 수입품도 포함되며, 단일 또는 소수의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검토 중이며, 철강, 시멘트, 콘크리트, 화학물질 등이 고려 대상입니다.

3. 시사점

탄소규제가 연일 강화되면서 EU와 영국으로 수출을 하는 국내 기업들의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전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규제가 등장하면서 제품 생산 등에 있어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측정하는 부분은 연일 중요해지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할 시스템 구축을 위한 IT기술 확보 또한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과 정제 분야 기업들은 품목 확장 시 CBAM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규제 동향의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준비 중이던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가는 만큼 앞으로의 대비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화우의 ESG센터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ESG Total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ESG 고도화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복잡해지는 ESG 정책 및 규제환경에서 화우ESG센터는 고객의 신뢰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신승국
미국변호사

T. (+82) 2 6182 8502
E. synn@yoonyang.com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

김정남
수석전문위원

T. (+82) 2 6003 8559
E. jnkim@yoonyang.com

강석준
변호사

T. (+82) 2 6182 8505
E. kangsj@yoonyang.com

양희
시니어매니저

T. (+82) 2 6003 7674
E. hyang@yoonyang.com

김현지
시니어컨설턴트

T. (+82) 2 6003 7470
E. khji@yoonyang.com